# 결의 드러낸 승려대회, 범불교도대회로 이어질까

## 범대위 · 봉행위, 1월 26일 연석회의

**후속 예고된 범불교도대회 개최는**
**결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
**민주당 로드맵서 일부 변화 확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5000여 스님들이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외친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는 역대 최대 수준의 승가 결집으로 변화를 향한 불교계 결의를 강력하게 드러낸 법석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월 말 예고됐던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 역시, 전국승려대회서 확정된 세 가지 결의사항의 이행 상황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이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평가 및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봉행위원장)은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개최한 승려대회가 5000여 스님들의 동참과 성원으로 여법하게 회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승려대회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의 일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정서는 바로 그동안 누적된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제부터 종단은 승려대회에서 표출된 스님들의 의지를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 위로는 종정예하의 유시를 받들고,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책위 보고에 따르면 전국승려대회는 총무원 공식집계인원 3508명에 개별 참석자를 더한 4000여 스님들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인원 등을 감안해 5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불교계 안팎 언론들이 100건이 훌쩍 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등 불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인원 결집에도 큰 소요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진행된 점, 그리고 고불문과 봉행사, 결의문 등 승려대회 결의를 모으는 여러 연설들이 승가 대중의 결의를 모아내는 여법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평가 및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치권 등 공직자들에게 그동안 불교가 홀대받았던 역사들을 명확히 인식토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큰 소요 없이 5000여 스님들의 결집이 여법하게 이뤄진 것은 모두의 자긍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려대회 말미, 예정에 없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영상 송출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발언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당시 봉행위원회는 간곡한 요청을 수용해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문체부 장관의 사과영상이 현장 스님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고 송영길 대표의 발언 역시 취소됐다.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승려대회는 승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대회로, 의미있는 연설로 결연한 의지가 모아지는 상황에서 황희 장관의 사과영상이 방영이 됐다"며 "다행히 발빠른 대처로 영상을 중단시키는 등 큰 소요 없이 잘 대처했지만 스님들의 결의에 찬물을 끼얹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반면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법원 스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봉행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대화의 기회를 줬음에도, 대중 정서는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고 본다"며 "전 종도가 합심해서 우렁차게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 승가대중의 결집력과 응집력을 드러낸 완벽한 승려대회였다. 정치권은 물론, 불교계를 사시안적으로 바라보던 여론을 상당부분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좋은 의도에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려대회에 부적절했음에 대해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승려대회 이후의 대응방안으로, 특히 2월 26~27일 예고된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스님들은 전국승려대회에서 5000여 스님이 결의한 사항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범불교도대회 개최 여부 역시 해당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차별금지법 제정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세 가지다

범대위는 범불교도대회 개최 여부 결정을 차기회의로 이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해체하고 범대위 산하 총무부장 삼혜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키로 결의했다. 한편 범불교도개최 여부를 결정할 차기회의는 2월 11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재정책, '규제' 아닌 '보존 · 전승'으로 전환"

## 더불어민주당, 1월 25일 국회서 기자회견

**전통문화 보존 로드맵 발표**
**전사법 등 4건 개정안 추진**
**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위'도**
**"소통으로 묵은 과제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 보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보존 · 전승을 위한 종합적 국가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 · 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해 공직자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 왜곡발언' 등으로 촉발된 문화재 홀대 · 종교편향에 대한 거센 반발여론에 따른 것으로, 향후 근본적인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위원장 김영배, 이하 전통문화특위)는 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지원청책 추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 복구 △국무총리실 산하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립추진 등 입법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특히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겨 왔다"며 이번 정책대전환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 · 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반복돼 온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방지하고 종교중립을 위한 정책제안과 홍보 교육을 담당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입법로드맵은 당 산하 전통문화특위가 조계종 등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희 기자

#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관' 개관

**1월 27일 개관식 진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전시실 · 체험장 등 운영**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전통기와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낸 한국기와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연수원(원장 현담)은 1월 27일 한국기와문화관 개관식을 진행했다.〈사진〉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과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이 터는 예로부터 '기와막골'로 불리는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울러 최대 규모의 가마가 있었다"며 "전통과 역사적의 의미를 되살린 대작불사를 통해 종단 인재 양성의 중심 한국문화연수원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릴 한국기와문화관이 건립되면서 교육은 물론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기와문화관은 2019년 착공, 연면적 998㎡의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와문화관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미디어관이, 2층에는 기획전시실이, 3층은 전통기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와의 출현과 변천, 분류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기와를 만나 볼 수 있으며, 기와 제작과정은 물론 당시 마곡사 일대의 기와생산 및 공급현황도 접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 교과과정 | | | | | | |
|---|---|---|---|---|---|---|
| 학 과 | | 교육내용 | 요 일 | 시 간 | 모집인원 | 담당교수 |
| 1학년 | 상주권공 Ⅰ |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 월 | 오후1시 ~ 5시 | ○○ | 조인각 스님 |
| 2학년 | 상주권공 Ⅱ |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 수 | 오후1시 ~ 5시 | / | 이기봉 스님 |
| 3학년 | 각배 | 각배 과정 | 목 | 오후1시 ~ 5시 | 편입생 약간명 | 마일운 스님 |
| 4학년 | 영산 | 영산 과정 | 금 | 오후1시 ~ 5시 | / | 김태호 스님 |
| 불교의식 이론 | |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 화 | 오후1시 ~ 4시 | / | 심만춘 스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